



부끄러움도 힘이 된다.

• • •

김 태연
서울대 사법대학
독어교육과 학부생

처음 학습상담을 받기로 결심했을 때 나는 이러다 내가 학교를 떠나든 학교가 나를 내쫓든 결단이 나겠다 싶을 만큼 학교생활을 간신히 버티는 형편이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순간에도 이제 바닥을 쳤으니 높이 올라갈 일만 남았다고 단단한 희망을 이야기하고 싶지만 실상 더욱 절박하게 깨달은 것은 현실은 그렇게 쉽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단호한 사실이다. 그렇지만 분명, 변화는 있다. 여기에 상담 선생님과 대화를 이어나간 지난 두 달 동안 나의 멘탈리티 곡선에서 가장 격하면서도 가장 의미 있는 변화의 지점을 솔직하게 적어보려 한다.

내가 대학에 들어온 뒤 까맣게 잊어버린 것이 바로 긴장감과 집중력이다. 깨진 집중력도 조각을 붙여가며 살려내던 내가 노력했던 시간만큼 반대로 낭비한 시간이 쌓이면서 그 방법조차 잊어버렸다는 사실이 상담 두 달째에야 감각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왜’ 보다는 ‘어떻게’를 질문하면서 내 앞에 놓인 텍스트를 더 성실하고 치밀하게 이해하려 노력했던 학생은 어디에 있는가, 매일이 시험이고 당장 내일이 수능이 길 바랄 정도의 긴장과 압박을 견디면서도 해내던 나는 대체 누구였던가. 스스로에게 책임이 없었던 5년간의 대학생활이 너무나 후회스러웠다. 정말, 너무나. 일주일을 꼬박 어둠 속에 웅크려 있으니 자연스럽게 ‘그래서 뭐가 달라지나?’ 싶었다. 그러곤 곧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질문하고 있었다.

더 이상 그럴듯한 의미 부여는 나에게 동력이 될 것 같지 않았고 할 수 있는 답은 정말이지 간단했다. “그래도, 그래도 해보자.” 감당하는 방법을 잊어버린 긴장감을 닥쳐오는 대로 받아들이고 흐려진 집중력이라도 끝까지 해보는 것 말고 떠오르는 건 없었다. 누군가에겐 이미 주어진 답일 수도 있겠지만 나로선 이 답에 이르는 데 동기들의 취업과 졸업을 지켜볼 만큼의 시간과 헛되게 보낸 과거를 돌이킬 수 없다는 후회를 대가로 치러야했다.

학습상담실에서

학습 상담을 받아 온 지난 두 달을 돌이켜볼 때 가장 먼저 생각난 말은 “부끄러움”이었다. 첫 상담날 어떤 생각을 하면서 상담을 신청하게 되었는지 묻는 상담 선생님에게 마땅히 꺼내놓을 대답이 없었다. 이제야 학교를 제대로 다녀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정도의 가벼운 마음이었다. 횟수를 거듭할수록 지난 상담을 되새기는 일도 잊어버리고 무엇보다 내 자신에게 너무나 부끄럽고 또 부끄러워졌다. 그러나 나에게 이런 참회와 각성은 이번만큼 극적이진 않았어도 결코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

순간의 깨달음으로 생활을 변화시키기 어렵다. 생활 그리고 인생의 변화에는 순간이 아니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쯤 이제는 안다. 나에게 과거는 여전히 혹독하고 현재는 지난하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밀줄 쳐!’ 을 외쳐주셨던, 그래도 해보겠다는 내 발언만은 기꺼이 책임져 볼 작정이다. 지금으로선, 이게 최선이다.